



Market Index / 23일

코스피지수 ▲ 2759.82 +26.14	코스닥지수 ▼ 923.17 -5.56	유가(WTI, 달러) ▼ 47.02 -0.95	환율(원)	1USD 1126.37 100¥ 1088.54	1087.63 1051.10	1EUR 1374.59 1CNY 178.05	1320.95 161.11
---------------------------	-------------------------	------------------------------	-------	------------------------------	--------------------	-----------------------------	-------------------

제주 GRDP 전년보다 소폭 상승

<지역내 총생산>

공공행정·정보통신업 성장 영향 20조2610억원 경제성장률 0.9%... 전국 평균 2.1% 못 미쳐 최하위 민간·정부소비는 늘고 건설·설비투자 등은 줄어

지난해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 (GRDP)이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업 등의 성장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GRDP(명목)은 20조2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100억원 상승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0.9%로 전년 -0.9%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2.1%에 못 미치

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도내 GRDP를 살펴보면 2015년 16조9470억원, 2016년 18조7190억원, 2017년 19조9810억원, 2018년 20조510억원, 지난해 20조2610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성장률은 2015년 7.4%, 2016년 8.0%, 2017년 4.6%, 2018년 -0.9%, 지난해 0.9%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역은 경북, 전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곳 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건설업(-10.1%), 전기·가스·열업(-8.2%), 농림어업(-2.5%) 등은 감소했으나, 공공행정(6.0%)과 정보통신업(9.8%)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GRDP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민간 소비(2.5%), 정부소비(9.2%), 지식재생산물투자(4.5%)는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10.2%), 설비투자(-4.4%) 등은 감소했다.

도내 경제구조(생산·지출)는 서비스업 비중이 전년보다 2.2%p 증가한 76.1%를 차지했고, 건설업(10.6%→9.9%), 농림어업(9.9%→8.8%) 비중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공공행정(12.1%→13.0%), 정보통신업(6.1%

→6.6%) 등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업(7.4%→7.3%), 운수업(4.9%→4.7%)은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지출의 55.2%를 차지했으며, 정부소비(24.9%→27.3%) 비중은 증가, 건설투자(27.4%→25.0%), 설비투자(8.2%→7.9%)는 감소했다.

지난해 제주의 지역총소득은 20조3000억원으로 전국의 1.0%를 차지했으며,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100.4 수준으로 전년(101.5)보다 하락했다. 개인소득은 12조4000억원으로 전년(12조)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072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FOMC와 내년 경제회복 기대

완화적 통화정책... 긍정적 작용 기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회의에서는 추가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급진적 변화는 없었지만,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일단 연준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GDP 성장률은 2022년까지 모두 상향 조정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까지 다소나마 상향 전망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4-5개월 정도 흑독한 시장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내년 중반이 지나면 강한 경제회복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가 개선될 수도 불구하고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도한 경제 전망이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소 2023년 말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는데 경제 전망이 상향되면서 등장했던 조기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킨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다. 경기 회복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현재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치는 현재 부양책 관련 협상이 통과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내년 2분기 백신 접종 후 중장기 전망 상향 조정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불안감 완화

는 점이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FOMC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면서 과도한 완화를 경계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이런 균형이 중요했던 이유는 현재 3~4개월 정도는 단기적인 경제 전망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락다운 재개 우려와 함께 추가 재정 확대정책 지연 등으로 단기적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지만 이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조기 집단면역 도달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내년 2분기 이후 중장기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도 지난 회의와 비교해 한 문장을 변경했는데 기존에 자산 매입 시한 가이던스를 기존 수개월에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로 대체했다. 2분기부터 경제 전망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우려는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된 경제 전망과 풍부한 유동성 환경의 지속이 확인된 만큼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의 점진적 안정 속에 커질 것이기에 향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 부양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대치는 증가하겠지만, 이미 증시를 통해 본다면 상당 부분 기대치의 높이가 더 상향되기에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번 FOMC를 토대로 증시상황과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정리해 본다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실물 경제보다는 앞서나가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이러한 기대치의 역치를 크게 높였기에 향후 추가적인 기대감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대감은 내년 미국의 재정정책 집행 또는 경제회복이 실물 지표로 보이는 시점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장



브로콜리 수확 한창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공항 연결도로 조기 개통 교통량 분산해 혼잡 개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3일부터 '제주공항-도시계획도로간 연결도로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기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공항입구 일대 정체해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제주공항 진출 방향 구내도로와 제주시의 공항-오일장간 도시계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총 길이 175m(편도 1차선)의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도로 공사에는 총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김현석기자

제주지역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확대

한국은행 제주본부 10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10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신(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0년 10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 잔액은 33조3874억원으로 전월 대비 2199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1824억원)보다 20.6% 증가, 전년 동월(3269억원)보다는 32.7% 감소했다.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 +854억원에서 10월 +1110억원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도 전월 +970억원에서 10월 1089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늘면서 9월 +886억원에서 10월 +1248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가계대출은 기타가계대출(+870억원→+876억원)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월 수준의 증가규모를 유지했다.

10월 말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잔액은 30조1889억원으로 전월 대비 1613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이 크게 늘면서 9월 -3819억원에서 10월 +1196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저축성 예금(-3423억원→-2036억원)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고, 시장성수신(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등)은 원화발행채권이 순환되면서 9월 -56억원에서 10월 -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폭(9월 +789억원→10월 +417억원)이 축소됐다. 김현석기자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

-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비료

-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2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